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June 9, 2016 Vol. 532



6월 6일~10일까지 남가주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내에서 열린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구촌 완전복음화 위한...한인세계선교대회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이하 KWWC)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6일~10일까지 진행됐다.

대회 일정은 4번의 저녁선교대회, 11번의 주제강연, 3번의 선교도전집회, 3번의 선교전략회의, 4번의 성경강해, 4번의 새벽기도회, 140개 선택강좌가 이번 대회 기간 내에 진행됐다.

선교사와 선교 전문가들이 참

여하는 9가지 주제의 전략포럼, 선교 관심자들이 선교사와 만나 대화하고 친교하는 '만남의 광장' 시간도 이번에 신설됐다.

또 60여 단체의 선교 부스가 설치돼 선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성인과 함께 참여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 EM선교대회, 어린이선교대회도 동시에 진행됐

고 기독교TV CTS, CGNTV, 미주 복음방송 등이 생방송으로 대회를 중계했다.

한편 3일~6일까지는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이하 KWMF)

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첫사랑 회복과 성령이 함께 하는 선교"라는 주제 아래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 참석한 932명의 선교사들은 대회 마지막 날 "신속

한 복음화, 연합, 재현신"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도 채택했다.

또 향후 4년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을 섭길 일꾼에는 김영섭·박영기·오세관·최근봉 선교사가 선출됐다. KWMF대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16차 중앙위원회총회를 통해 이들을 공동회장에 선출했다. 사무총장에는 남가주에 기반을 둔 SON미니스트리의 김정

한 선교사가 선출됐다.

7일에 열린 KWMF 여성선교사총회에서는 배점선 선교사(불가리아, GMS)가 회장, 김성자 선교사(도미니카, 기감)가 부회장에 인준됐다. 한인세계선교사회는 1명의 대표회장과 3명의 공동회장, 21명의 부회장 겸 지역회장과 함께 1명의 여성 부회장을 두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참조]

"지중해 난민 의사자…2014년 이후 1만 명"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중해에서 선박 사고로 숨진 난민이 만 명을 넘어섰다.

7일(현지시간)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초 아래로 지중해에서 선박 사고로 숨진 난민 수는 1만85명에 달했다.

2014년 3천500명, 작년 3천 771명이었던 의사 난민 수가 올해에는 한 해의 절반도 지나기 전에 2천814명이 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발칸 루트 차단으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

는 난민이 줄어든 대신,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는 더 위험한 경로를 택하는 이들이 늘면서 불과 몇 주 만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규모의 인명 손실을 용인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를 저지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들의 발길을 막는 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EU는 이를 난민의 고향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손을 잡고 난민 발생을 억

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가 7일 새로 내놓은 난민 대책에는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등 난민 발생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난민 유입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EU 자금을 활용해 이들 국가에 대한 민간 투자를 600억 유로까지 늘리고 EU 자금 80억 유로를 EU 외부 국가들과의 이민 협정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김혜진 기자

무슬림 위한 30일 기도

올해 라마단 기간은 6월 6일~7월 5일까지이다.

라마단 월은 이슬람력에 따라 정해진다. 양력으로는 매년 약 11일씩 차이가 난다. 라마단 일자는 달의 출현여부에 따라 나라별로 다를 수 있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여 그 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한다. 노인과 허약자 어린아이와 임산부는 금식에서 제외된다.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에 맞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국제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약 17억의 무슬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이 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하나님 눈으로 분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무슬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기대하는 절실한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기도 하다.



담임목사 : 김용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51) 383-5583
Tel:(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6년 여름계절학기/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 신학사(B.A.), 교역학석사(M.Div.)

오프라인 개강 : 2016년 8월 29일 (월)
온라인 개강 : 2016년 9월 5일 (월)

ESL 개강 2016년 9월 5일 (월)

* 2016년 가을학기 크리스천 상담 심리학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개설 예정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교단 목사고사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사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교단 소속 노회에서 인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u.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박정환 목사) :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주철현 목사) : 010-9086-2458 / diaconia@gmail.com

www.ptsa.edu

ESL 문의 및 상담

- 강우중 교수 (wjkang@ptsu.edu)
www.facebook.com/SLCS.EPT

I-20 발행

정회원 ptsu 정회원 후보
ABIEE

2016년 여름계절학기 강의일정 시간표

과정 / Degree	과목명 / Course Title	기간 / Course Period
B.A.	교차문화적 소통 (Cross-Cultural Communication)	5월 23일(월) ~ 27일(금)
B.A.	목회기본 (Introduction to Pastoral Ministry)	6월 13일(월) ~ 17일(금)
B.A.	기독교 윤리와 신앙 (Christian Ethics & Faith)	7월 11일(월) ~ 15일(금)
M.Div.	신구의 중간사 (History of Intertestamental Period)	5월 23일(월) ~ 27일(금)
M.Div.	기독교신비주의: 역사와 신학 (Christian Mysticism: History & Theology)	6월 6일(월) ~ 10일(금)
M.Div.	디아코니아 목회 (Diaconia Ministry)	6월 13일(월) ~ 17일(금)
M.Div.	디아스포라 신학과 역사 (Diaspora Theology and Its History)	6월 20일(월) ~ 24일(금)
M.Div.	로마서 (Romans)	7월 11일(월) ~ 22일(금)

디아코니아 목회 세미나

Part 1 : 디아코니아 목회의 실제

Part 2 : '하나님 나라와 디아코니아' 신구약 성경연구

일시 : 6월 13일 (월), 저녁 6:30 - 8:30 / 장소 : 미주장신 채플실



강사 : 김한호 목사

독일 오스나부루크대학교 실천신학(디아코니아 전공) Ph.D.
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 및 디아코니아 연구소장
춘천동부교회 담임목사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제25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학위수여식이 4일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려 총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25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학사18명, 석사 32명 등 졸업생 총 50명 배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 제25회 학위수여식이 4일 오후 2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본당에서 이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졸업생과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기독교 상담학을 비롯한 학사 18명, 목회학을 비롯한 석사 32명 총 50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총장상을 비롯해 7개 부문에 대한 수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임성진 부총장 인도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순서담당자, 교수단, 졸업예정자들이 입장한 후에 인도자의 개회선언, 신선목 교수 기도, 학사보고, 학위수여, 전은선 재학생의 축가, 총장 훈화, 졸업생 답사, 유혜영 학우 인도의 헌신기도, 교가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이 대학 설립자인 임동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날 송명정 총장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제의 훈화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도하며 공부하여 이 자리에 동참한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도움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임하기 바란다”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중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달려 나가고 싶다는 진취적인 신앙 자세를 견지했던 바울 사도처럼 졸업생 모두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달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현재까지 25회의 학위수여식을 통해 목회학 박사 3명을 포함해 학사 357명, 석사 416명 등 총 77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2013년 8월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정회원 인준을 취득했다. 이로써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정회원 인준까지 취득한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인준기관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받은 최초의 한국 계 기독교 대학교로서 정부FAFSA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확장을 통해 전세계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월드미션의 질높은 교육 수혜를 입고 있다.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정회원 인준을 취득했다. 이로써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정회원 인준까지 취득한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인준기관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받은 최초의 한국 계 기독교 대학교로서 정부FAFSA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확장을 통해 전세계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월드미션의 질높은 교육 수혜를 입고 있다.

또한 영주권 자격의 BA학생들에게는 재정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며 선교사, 목사, 전도사 및 사모에게는 수업료의 25퍼센트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문의: 213-388-1000

* 웹사이트: www.WMU.EDU

이인기 기자



OC 지역교계가 연합해 (앞줄 원쪽으로부터 네 번째)박보영 목사 초청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OC 지역 교계 연합부흥집회 “용서받은 죄인들”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강사로… 감사한인교회에서 은혜롭게 진행돼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담임)를 강사로 “용서받은 죄인들”이란 부흥집회가 1일 저녁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박보영 목사는 “이 길 확신 합니까(행9:1-5)”란 설교에서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

고 죄를 씻으며 거듭나야 하고 예수 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방주교회는 10주마다 한 번씩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모든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섬기고 현금하도록 하는 섬김

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행사는 OC교협,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CTS아메리카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 집회의 모든 현금은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됐다.

권 셀비 기자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또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모여 교회 개척, 성장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나누고 동역한다.

이 시역을 처음 시작한 김형국 목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IVF(한국기독학생회)에서 5년간 간사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유학과 시카고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에는 한국 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하다 나들목교회를 개척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LA 지역 하나복에 관한 문의는 김대성 목사(213-999-6214, daesongdoo@gmail.com)에게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GMI청소년 오케스트라 무료 콘서트”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름 콘서트가 무료로 개최된다.

도 마련된다. 지휘는 OC심포니 캐원지휘를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승재 집사가 한다.

-일시: 6월 11일(토) 오후 7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문의: 714-318-2085

-이메일:gmiorchestra@gmail.com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오는 6월 11일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 콘서트를 연다.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 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 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차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교수진 및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박성규 이사장, (다섯 번째)이상명 총장.



미주연합장로회 총회 및 말씀 성령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제36회 미주장신 졸업 및 학위수여식”

학사 7명, 석사 21명
총 28명의 졸업생 배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
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 제36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4
일 오전 10시 남가주동신교회(담
임 백정우 목사)에서 1부 감사예
배, 2부 학위수여식으로 각각 나뉘
어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학사 7명, 석
사 21명 총 28명의 졸업생을 배출
했다. 또한 성적 우수상으로는 구
선희(총회장상), 성재림(이사장
상),

상), 성동숙·김혜영(총장상) 등에
게 각각 수여됐다. 동문회상으로는
김은희(공로상)와 양인희(봉사상)
에게 돌아갔다.

학생처장 박충기 목사 인도로 시
작된 1부 감사예배는 기수와 교수
진 및 졸업생들의 입장, 북도, 예배
의 부름, 다함께 찬송(320장), 기도
(서남노회장 이철 목사), 성경봉독
(서중노회장 라세영 목사), “따로
세워 보내다”(행13:1~3) 주제의
유영기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장) 말씀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
다음, 다함께 찬송(543장)한 후 이

사장 박성규 목사가 축도했다.

교무처장 구경모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학위수여식은 사회자
의 학사보고, 학위증서수여, 시상
식, 격려사(이상명 총장)등의 순서
로 진행됐다. 이어 양인희 졸업생
대표가 학교에, 재학생 대표 노영
주가 졸업생에게 각각 기념품을 전
달하는 시간을 갖은 다음, 광고가
있은 후 다함께 교가를 제창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 문의: 562-926-1023

* 웹사이트: www.ptsa.edu

이영인 기자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장자인 성도”

이영환 목사 초청…LA장자권 기도목회세미나 개최

한국을 넘어 미주 곳곳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이영
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
의 장자권 세미나가 5월 25일~27
일까지 “이민교회를 위한 장자권
기도목회”란 제목으로 LA 미주양
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열
렸다.

이번 세미나는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사모, 평신도 지도자를 대
상으로 열렸으며 한국기독교부흥
협의회 미주지부(대표회장 지용덕
목사)가 주최했다.

25일 첫 강의에 나선 이영환 목사
는 “믿음은 곧 선포”라면서 자신의
간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1980
년 한밭제일교회를 개척해 대전을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그

는 사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대인
기피증까지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신학생 시절 교내 설교 대회에서 1
등을 해 보겠다고 조카들에게 선포
했다가 정말 1등을 하게 되고 자신
의 평생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그건 바로
‘믿음의 선포’다. 창세기 1장에서 하
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뤄지
듯, 예수님이 통해 하나님의 장자가
된 성도가 행하는 믿음의 선포 역시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의 최고봉은 기도
다. 그가 세미나에서 강조한 기도 비
법, 믿음의 기도는 정말 단순하다. 일단
예수님의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
야기도, 산기도, 피땀의 기도, 큰 소리
의 기도를 따라 하란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자주, 오래, 큰 소리로 은밀하
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
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값으
로 사신 장자”라는 믿음을 갖고 장자
의 권리로 선포하고 외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총회장 노인수 목사
부총회장 현종각 목사 선출

제7회 미주연합장로회 총회 및
말씀 성령 컨퍼런스가 나성소망기
도원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3)”는 주제 아래 5월 23일
~27일까지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동부와 중서
부 지역,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지역에서 53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총회장에 노인수 목
사(뉴욕노회), 부총회장에 현종각
목사(워싱턴노회), 여성부총회장

에 권보라 목사(중앙노회), 서기애
최규홍 목사(오레곤노회), 부서기
에 라홍채 목사(뉴욕노회), 회의록
서기에 이인기 목사(중앙노회), 부
회의록서기에 최경일 목사(서부노
회), 회계에 강태홍 목사(하와이노
회), 부회계에 정경희 목사(서부노
회), 감사에 심진구 목사(서부노회)
가 선출됐다.

총회 기간 중 5월 25일에는 유나
이티드신학대학교 졸업예배 및 학
위수여식, 26일에는 목사안수식이
각각 진행됐다.

김준형 기자



식순을 맡은 목회자들과 임직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앞줄 맨 오른쪽) 담임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창립15주년 감사·임직예배”

열매교회가 창립 15주년을 기념
해 감사예배를 드리며 5명의 일꾼
을 세웠다. 배태민 안수집사가 임
직했으며 김기순, 문정옥, 박화형,
성정민 권사가 취임했다.

5일 열린 감사예배 및 임직식은
김요섭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임진호 장로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
회장인 양수철 목사가 “이상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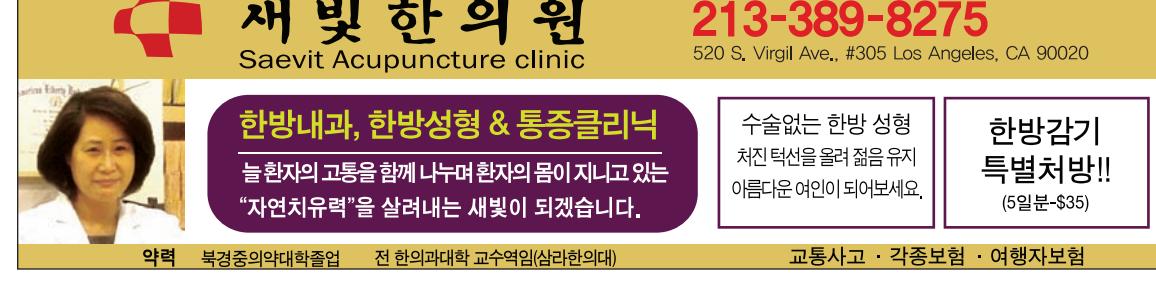
교회 vs. 성경적인 교회”란 제목
으로 설교하고 전 가주노회장 김
광삼 목사가 권면 및 축사했다. 김
상호 전도사와 김희영 집사가 축가
를 부르고 리틀리디머가 축하 공연
을 했다. 축도는 안국련 원로목사
가 했다.

* 문의: 323-737-3009

* 주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김준형 기자



창립 28주년 및 제6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

일시: 2016년 6월 18일 (토) 오전 11시

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금요찬양예배: 저녁 7:45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김광삼 목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저희 동문교회는 창립 28주년 감사예배 및 김광삼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는 취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동문교회
East Gate Korean Presbyterian Church

전화: (213) 483-662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교수 및 학교관련자들과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8회 코헨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세계선교 위한 ‘비전153 월드미션’…110개 국에서 총 279명 졸업

코헨신학대학교(설립자 강신원 박사, 총장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 이하 코헨대) 제28회 학위수여식이 5월 26일 오후 4시 토렌스에 위치한 코헨신학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피드먼트대학교(Piedmont University, 총장 윌리엄 스티드 박사, 이하 피드먼트대) 학위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미국,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등 총 110개 국가 코헨대 분교로부터 학사 152명, 석사 76명, 박사 39명, 명예박사 12명 등 총 279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이날 졸업식은 로날드 밴더메이 코헨대 총장이 개회기도를 한 후 개회찬송 ‘그린란드의 얼음산(Greenland’s Icy Mountain)’을 다함께 합창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코헨대 명예총장 게리 코헨 박사가 말씀을 전했다.

게리 코헨 박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은 모두 우리에게 올 것이다”(요6:37)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요한복음 6장 37~40절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 가장 복음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화증의 말씀이다”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사탄의 때는 끝나가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미국을 악으로 치닫게 하는 사탄의 지배자들은 결국에는 패망할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고 기독교인을 순교하게 만드는 중동의 사탄 세력들도 중국에는 어린양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며 “밤은 다가오고 있는데 추수 할 일꾼은 떠없이 부족한 오늘날, 추수 때를 맞아 중단없는 복음전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 러므로 졸업생 여러분들은 하나

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과 사명인 생명의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위수여식과 특별상 시상식이 각각 이어졌다.

스틴드 총장, 김기용 목사 등은 축사를 전했다. 특별히 이날 졸업식에서는 한국 중앙신학대학교 총장이며 피드먼트국제대학교 총장인 백기환 박사가 참석하여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한편 코헨신학대학교는 세계 153개 국가에 신학교를 세우는 ‘비전153 월드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현재 110개 국가에 분교를 세웠으며 조만간 아프리카 케냐 등 112개 국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총 졸업생은 약 7,800여 명에 이르며, 그 중 25명의 총장을 배출했고, 현재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 문의: 310-793-2285

이영인 기자

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 신임회장 한기형 목사 추대

남가주교협의 증경회장들과 현 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왼쪽으로부터) 신임부회장 박효우, 직전회장 류당열, 신임회장 한기형, 신임총무 정해진 목사와 강신권 현 교협회장.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한기형 신임회장은 “남가주교협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증경회장들은 교계를 위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협력할 일이 생기면 힘을 낼 수 있도록 돋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충고하는 역할에 충실히 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온네시모의 독백

김영언자



18. 두건을 머리에 쓸지어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써둔 말이다(저자주 – 고린도전서 11장 5절).

유대를 포함한 소아시아와 중동 지방에서 결혼한 여자는 관습상 머리를 가려야 한다. 허나 이런 관습이 없는 지역에서는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게 될련지는 몰라도, 유대인 이기도 한 바울의 이런 말씀은 지금 기독교회의 혼란을 반증하고 있다.

기독교가 유대를 벗어나 세계종교가 되면서 일어난 혼란은 그뿐이 아니다.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는가.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유대인의 안식일 그러니까 한주의 마지막 날에 모여 예배한다.

그런가 하면, 예수가 부활한 안식일 다음 날에 모여야 한다는 것도 많다. 어느 것이 맞다고 정해줄 권리지도 없다. 예배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는 새로운 믿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남기었으나 예배의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 이외에는 별도의 지시를 남기지 않았다. 유대교의 엄격한 유월절 율법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예수의 언행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향이 커져 가고 있다. 회당에 모이지 않고 몇몇 가정에 모여 성경을 헤집하고 지도자가 강독하고 기도한 뒤, 함께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바울의 고린도서신에는 이 공동식사에 이미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 있고 술에 취한채 성찬식에 참여한 모습에 대한 지적도 보인다(저자주 –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전도한 초기 시절, 따르는 이들은 소유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의 생전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할 것으로 굳게 믿었다. 그러나 한세대가 지나자 열정과 기대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가 말했던 재림은 성령의 강림을 말한 것이라는 해석이 조용히 힘을 얻어간다. 기독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교회가 커지면서 순수한 신앙공동체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구원받은 인간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불완전하며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가득하다. 바울의 조심스런 권면에

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성도들에 대한 유대출신 랍비의 본능적인 불안감이 느껴지는 건 내 괜한 생각일까.

19. 수혜나 가족을 잊고서

수혜나 가족은 아시아 동쪽지방 출신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도시 골로새로 이민을 오면서 생애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곧 세례를 받은뒤 가정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문제는 그녀의 어린아들 예리코로부터 발생했다. 예리코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예리코는 부모가 가정교회내 또래 아이들이 있는 몇몇 가정과 식사와 교제를 할 때마다 아이들과 계속 갈등을 벌였다. 수혜나는 무난한 성격이었으나 아이의 사기를 꺽지 않는 데에는 마음을 크게 두는 엄마였다. 어느날 예리코와 한 또래 아이는 서로 간에 장난감을 빌려준 것인지 훔친 것인지를 두고 크게 다투었다. 수혜나는 억울해 하는 예리코를 데리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서운함을 표시한 뒤 교회를 떠나갔다. 아이들의 텁세도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예리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다. 다른 몇 가정이 예리코와 아이들 간의 비슷한 갈등을 전하였고, 그 결과 수혜나 가족을 붙잡거나 갈등을 봉합할 노력없이 시간이 흘렀고 수혜나 가족은 신앙에서 멀어져 갔다.

아이들 간의 사소한 문제로 막 신앙에 접어든 저들을 잊은 이 일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예수가 사역초기 산상에서 남긴 얘기를 사도베드로에게 들은 적이 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가 제자에게 바라는 삶의 수준은 인간의 자연스런 성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예리코와 수혜나를 사랑하기 위해 저들을 용납했다면 그 상대방이었던 다른

가정과 아이에게는 억울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보이기도 한다. 이민자로서 정착에 열심이던 수혜나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그 가정을 다시 보고 싶다. <계속>

헤어 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곳

マイスタイルリスト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up

프로페셔널 웨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누가복음 15:11~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누가복음 15:3~7에서는 양 백 마리중 하나를 잃었을 때 애타게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와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8~10절에서는 여인이 드라크마 열 개 중 하나를 잃었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들며 힘써 찾았을 때의 기쁨같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누가복음 15장은 회개는 죄인의 의무로되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임을 밝히신 진리와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1. 실패와 절망 고통과 죽음의 상황파악

본문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알뜰한 사랑의 보살피심을 만족한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분깃만을 강요하여 그것을 서둘러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 자기 인생이니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발상(發想)이 인생실패의 시작(始作)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의 어리석은 계획대로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얹지떼를 써서 결국 얻어내었고 그 재산을 처분하여 서둘러 떠날 때에 자기 계획과 뜻대로 잘되어 간다며 무척 기뻐했겠으나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은 불안한 근심과 작은 아들의 실패와 불행을 예전하는 아픔과 자식 잃는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30에 큰 아들의 불평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없애 버렸다고 했으나 작은 아들은 큰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알고 기생창녀들, 술친구들과 어울려 허탕방탕하다가 돈이 떨어지니 그렇게도 다정다감했던 기생창녀들이 헌신짜 버리듯 하는가 하면 술친구들 마저도 귀찮은 존재로 멀리하고 외면하니 사방천지에 기대할 곳이 없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처럼 우선 입에 풀칠할 대책이 다급하여 취직이라고 하고보니 들에 있는 데자우리에 살며 돈육사(豚肉師)가 되었으나 설상가상(雪上加霜)격으로 흉년이 들어 돼지 사료인 쥐염열매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自身)을 직감(直感)하게 됩니다. 진종일(盡終日) 돼지 땅에 시달려 지친 몸을 돈사(豚舍)에 누워 단잠을 청해보지만 밤바람은 차갑게 빼 속으로 스며들고 밤하늘의 별들마저 눈물을 머금고 자기를 불쌍히 내려다보는 듯 실패(失敗)한 자의 고뇌(苦惱)를 더욱 슬프게 했을 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며 스스로 생명직전임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살 길을 찾아 새 출발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날 돈 잘 쓸 때에 그토록 따르며 입술발림의 좋은 말로 어울려 주었던 기생

창녀들, 그리고 술친구들의 배신에 대한 미움도 칼을 갔던 원한도 다 쓴 웃음과 함께 던져버리게 되고 오늘의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순전히 내 자신의 오만과 방종으로 스스로 서두르고 재촉해서 만들어 온 결과임을 암시적으로 절감(切感)하며 대로 절망에 빠져 죽을 수 없다는 각성(覺醒)과 다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 뿐임을 확신(確信)하고 어리석은 자신에게 속아서 정신없이 달려온 사망의 길을 중단하고 아버지를 향한 생명(生命)의 길을 찾아 새 출발하는 과감(果敢)한 결단(決斷)이 곧 생명길의 시발(始發)이었습니다.

2. 아버지를 향(向)한 회심(回心)과 소망 기대(所望期待)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되고 막상 돌아가려니 양심적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분깃을 강요하듯 미리 받아 육체의 본능적 욕구와 기분, 감정따라 허세와 방탕으로 온갖 죄를 지으며 다 없애 버렸으나 아들이란 대접 기대는 도저히 불가하고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라도 일거리를 얻어 아버지께 의지하며 살고픈 소망적 기대가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입니다. 근간 절망과 고통이며 죽어가는 신세로 실패하게 된 그 모든 원인과 결과적인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소치(召致)임을 골백번 시인하며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받고 품꾼으로 채용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보살피심을 위해 모든 간섭까지도 아버지의 자식위한 염려(念慮)로 알고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절대순종(絕對順從)하여 살리라고 수없이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귀향(歸鄉)길에 오르지만 돈이 없으니 목욕도 이발도 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돼지 오물 냄새를 풍기는데다 굶주려 죽어가는 너무나 예마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3.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명의 길

그날도 아버지께서 동구 밖 언덕에 올라 동네 입구의 길을 바라보시며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모습을 애타게 살피고 계셨는데 저 멀리 거지같은 사람이 오고 있어 작은 아들임을 직감(直感)하여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며 환영하는데, 작은 아들은 21 절 이하에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대접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며 용서부터 빌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즉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발에 신을 신기라 하시고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

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만일 작은 아들이 과거의 기생창녀들이나 술친구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척당했다는 배신감이나 원한에 사로잡혀 복수의 칼을 같고만 있었거나 지금의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처지로 인해 지난 날의 허탕방탕했던 죄책감과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으니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 갈 수 있겠는가 하고 예마른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로 아버지께 돌아온 작은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 살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음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곧 사망의 길임을 빼가 저미도록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곧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11~1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짓고 또 사망의 길에 죽어가는 형편에서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 5:17~20 “불찌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찌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과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티인즉”하심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길에 방황하며 죽어가는 죄인들이 서둘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 길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기 위해 실패, 절망, 고통 등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몰아가시기도 하신답니다. 그러나 구원설리의 하나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입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119:67)”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며 돈만 더 달라고 줄랐다면 그 아버지께서 범죄와 방탕의 밑천을 계속 주셨을까요? 본문에서 당자의 회개는 사활(死活)을 거는, 즉 사망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을 찾는 사생결단(死生決斷)의 회심이었기에 아버지께서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아들의 자격을 공인(公認)시키는 의식(儀式)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으로 발에 신을 신겨 주신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미리 챙겨 멀리가서 탕진했으니 아버지 집에는 자기 뜻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지만 회개가 온전했기에 아들의 자격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여건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것이 다시 제 것이 되어지는 이 엄청나고 놀랍고 과분한 대접은 순전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며 무한하신 은혜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회개한 작은 아들은 자기 뜻이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명 길에 들어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CTS TV	CBS TV	경북 기독 신문
금요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12시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CTS TV	COX TV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화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8시/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후 11시30분	토요일 오전 7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온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r B&W 55/55 ppm
C454e Colo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Emers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hub**
bizhub MarketPlace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쇼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연합운동의 결실(III)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한국 초기 교회의 연합운동 결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 번역의 협력이다. 어느 선교지에서든지 초기 선교 사역 중 성서 번역과 인쇄 및 출판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로 성서의 번역, 출판은 중요하고도 시급했다.

초기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은 일은 성서 번역 사업이다. 1887년 언더우드가 그 동안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손질한 후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 그 곳 미국 성서공회의 헵번(J.S.Hepburn)을 만났는데, 그는 한국도 장기적으로 성경의 한국어 번역을 위해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돌아온 즉시 '상임성서실행위원회'(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를 1887년 2월 구성했다. 그 공식 명칭은 '한국성서상임위원회'(PBC in Korea)라 했다. 상임성서실행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893년이다.

이 위원회는 여러 선교회 대표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가 한 일은 번역자 선출, 원고 검토, 편집,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경의 가격을 결정하는 일 등이었다. 이 위원회 산하에 '번역위원회'(The Translating Committee)와 '개정위원회'(The General Revising Committee), 두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번역위원회는 성서 번역 사업을 총괄했으며, 번역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독어, 중국어 성경과 영어 개역판을 참고서로 사용했다.

번역위원회에는 초기부터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이 참가했는데, 언더우드는 첫 조직 때부터 세상을 떠나던 1916년까지, 일생 동안 위원장직을 맡아 수고하여 한글 성경 번역에 혁혁한 공로는 남겼다.

이들의 노력으로 1910년 신약성경이 완역되어 출판됐다. 구약 역시 여러 사람이 부분적으로 번역하여 후에 이것을 모아 완본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 1911년에 완성, 출판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신구약 성경을 갖게 되는 경사를 맞이했다.

연합사업은 교육기관의 신설과 통합으로 이어졌다. 송실전문학교

(The Union Christian College)는 평양에 세워졌는데 북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마펫에 의해 시작됐다. 1905년 봄 서울에서 열린 감리교 연차대회에 참석한 베어드(W.M.Baird)가 감리교회와 연합으로 이 학교 경영을 제안했다. 감리교회는 이 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전·감 연합으로 대학을 운영했다.

이 학교는 네 장로교 선교부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가 연합으로 경영하는 모범적 연합 교육기관이 됐다.

다음으로 연희전문학교(The Chosun Christian College)가 있다.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루어낸 에큐메니컬 기구가 연희전문학교다.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와 남·북감리교회가 연합하여 경영하면서 이 대학은 한국의 대표적 연합기관으로 오늘에 이른다. 1957년에 연희대학교는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이 합병하는데, 연희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를 합해 오늘의 '연세대학교'가 됐다.

다음은 피어선기념성경학교다. 이 학교는 1912년 연합 성경학교로 시작됐는데, 후에 이것이 피어선기념성경학교가 됐다. 이 성경학교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 부부장으로 오래 수고한 피어선(Arthur T.Pierson) 박사를 기념하여 세운 학교다. 이 학교에 남·북감리교회, 북장로교회, 그리고 캐나다 연합교회가 참여하여 협력했다.

이 성경학교는 초기부터 유지돼 오던 '피어선'이란 이름이 생략된 채, 근래 이 학교가 옮겨간 경기도 평택의 지방 이름을 붙여 평택대학교로 개칭됐다.

세브란스의과대학 및 병원은 네

장로교회, 두 감리교회, 성공회가 연합 사업에 동참한 기관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협력을 거부하던 제7일안식일교회가 이 일에 동참한 것이 눈에 띈다. 세브란스의과대학에는 세 사람의 일본인, 네 사람의 한국인, 여덟 사람의 외국인 교수가 강의했고, 또한 세 사람의 일본인, 네 사람의 한국인 강사가 출강했다. 의과대학은 각 선교부가 파송한 이사로 구성된 행정위원회가 관리했다.

세브란스병원 원장 애비슨은 그가 쓴 글에서 세브란스에 "한국에 있는 모든 의료 선교사들이 연합하기 위해 결합하였다"고 기록했다.

애비슨의 에큐메니즘 정신은 투철했다. 그는 본래 감리교인이었으나 장로교회 선교사로 임명받고 한국에 나와 일했다. 그는 교파의식 없이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마지막까지 연합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1930년 7월 전조선교역자하기수련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다. "부정(不正)한 세력이 점점 가세하여 우리의 생활을 공격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세력은 가급적 밀접히 연결할 필요가 있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신도 하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또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37년 전 나는 가나다 감리교인으로 미국 뉴욕 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가서 조선에 선교할 목적을 말하였다. 내가 능히 장로교 선교사가 될 것 같이 생각하느냐 하였느니 그의 [엘린우드: 당시 해외선교부 총무] 대답이 조선에 감리교적 열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만 힘 있게 전하면 그만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조선에 장로교 선교사를 보낼은 장로교를 유력(有力)하게 하려는 것보다 조선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려 하노라 하였다."

위의 글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에큐메니즘 정신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다.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으로 많은 연합 기관이 형성되어 내려오다 이들 대부분이 오늘에 이르러 한국인들에게 넘어와 협력을 다지게 된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공헌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 조각글

목회 대명, 그리고 목회 대현장



이 정 근 목사
성결교회

선교대명이라는 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말이 되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마28:19-20) 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1:8)는 말씀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대명이 꼭 하나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구약성경에서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대명 아닌가. 그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사랑대명의 선포였다.

이 사랑대명은 쉬마(신6:4-9)에 근거하여 교육대명이라고도 부른다. 인간교육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성결교회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을 성결대명이라 이름 붙인다. 그리고 사회봉사기관들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날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섬김의 대명으로 삼는다.

여기에 목회대명을 하나 더 추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지명해 부르셨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나온다. 양들을 잡아먹는 데만 혈안이 된 악한 도둑놈들이라고 가차 없이 질타하셨다. 반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좋은 목자의 표준이라고 선언하셨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표준을 제시하셨다. (요10:11).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셨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목자였다. 그는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나 곰과도 목숨을 걸고 싸웠다.(삼상17:34-37). 그리고 시편 23편 곧 '아훼는 나의 목자'라는 명시를 남겼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혈통을 타고 나셨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영혼구원, 교회설립,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항상 그 의식 속에 착한 목자가 될 결단을 가득 차우셨다.

그리고 목회 대현장을 후대 목자들에게 선물로 남기셨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대현장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뼛속 깊이 새긴 까닭에 예수님을 목자장(벧전5:4)으로 모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목회대명, 그 양들을 위하여 단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라는 목회 대현장의 실천이 아닐까.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직업 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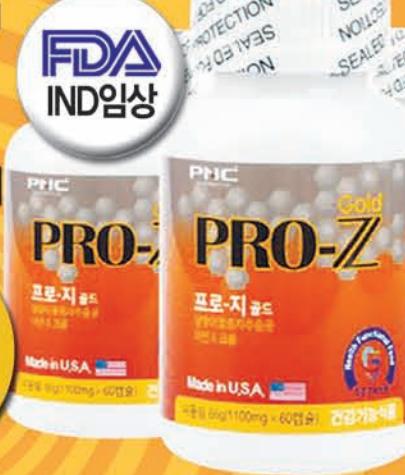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연세중앙교회 예루살렘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



한국교회정보센타가 목회자의 날을 맞아 영적각성대성회를 개최했다.

“동성애 반대·할랄단지 백지화”

연세중앙교회서 '미스바 구국기도 대성회' 개최…3만여 성도 모여 기도해

군 내 동성애 합법화 저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할랄식품단지 조성 백지화를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 대성회'가 6일 서울 궁동 연세중앙교회(담임 윤석전 목사)에서 예수생애부흥사회와 전국목회자 실천목회연구원, 에스더기도운동 등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대성회에는 3만여 명이 참석해 본당 1,2층과 각종 부속건물 까지 모두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로 가득 찼다. 대성회는 윤석전 목사의 인사말과 기도 인도, 이해훈 의원(새누리당)과 조영길 변호사,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첫 강연에서는 이해훈 의원이 '국내 이슬람 유입과 한국교회 대응 방안'에 대해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할랄의 경제적 유익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건립부터 유통·물류까지 막대한 투자 경비가 드는 데 비해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양고

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결국 국 모두 수입해서 재가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훈 의원은 "할랄' 음식은 무슬림들이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식품단지가 생기면 결국 수만 명의 무슬림들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며 "무슬림들이 1~2% 만 거주해도 우리나라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이미 사설상 만들었고, 각 정부 부처에서도 앞다퉈 만들려 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들도 할랄식품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선거 전에는 할랄단지를 취소하겠다더니 지금은 '신정자가 없어 보류 상태'라고 한다. 아예 '백지화'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저들은 지금 수쿠크법이 안 되니 연구 끝

에 할랄을 내세운 것이다. 9·11이 테러 지하드였다면, 할랄은 경제적 지하드"라며 "6년 전 수쿠크법이 통과되기 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막아 주신 일을 기억한다. 수쿠크법을 막아 주신 하나님께서 할랄 지하드를 막아 주지 않으시겠는가"라고 물었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주최 측은 현충일에 성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현충일은 쉬면서 여기저기 놀라다니는 날이 아니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싸워 지켜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와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연 후 교인들은 이슬람 할랄 식품단지 도입 반대 등을 놓고 뜨겁게 기도했다. 이후에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대웅 기자

“다음세대 회복 위해 기도의 가슴으로 나가자”

목회자의 날 기념…목회자 부부 영적 각성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정보센타(소장 김향안 목사)는 5일 '목회자의 날'을 기념해 5월 30일~6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수원 흰돌산기도원에서 "목회자의 영성 회복과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로 '2016년 목회자의 날 기념 목회자 부부 초청 영적 각성 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석전 목사

(연세중앙교회 담임)와 이광복 목사(목양교회 담임), 김향안 목사가

주강사로 헌신했다. 윤석전 목사는

개척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서 고민

하는 목회자, 전도의 능력을 빙기

원하는 목회자, 영적 생활 회복을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경험에서 우

러나온 기도·영성목회의 진수를

전수했다. 이광복 목사는 계시록에

대한 차원 높은 말씀으로, 주님 오

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을

알게 해 줬다. 이 외에 고만호 목사,

김기대 목사, 서대천 목사, 윤요한

목사, 이규환 목사, 이훈 목사, 장경

태 목사 등이 강사로 초청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

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중

고등학생 등을 목회자의 기도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교회정보센타는 세계 최초

로 '목회자의 날'(6월 5일)을 제정

하고, 이를 기념하는 동시에 전국

의 목회자 부부를 위로하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로 19회째 '목

회자 부부 영적 각성 세미나'를 개

최해 오고 있다. 이 세미나는 매년

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할 정

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의 경우 미국·유럽 및 아프

리카에서 많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들의

인도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열기를 보여 줬다.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숙박을 전

액 무료로 한국교회정보센타가 제

공했다. 참석자들을 위해 소형차 3

대, 복사기, 강대상, 성화 등 각 교

회 목회에 필요한 푸짐한 경품이 마련됐다.

'목회자의 날'은 김향안 목사가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제정운동을

벌인 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한

국교회정보센타 수의금을 통해 전

개해 왔다.

김은애 기자



두 손을 들어 친양하고 있는 참석자들.

다. 남북관계 역시 점점 더 괴이는 것만 같다"고 했다.

김 목사는 "바로 이런 때, 우리 자

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켜야 한다"며 "하나님

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에 순종하

며, 거룩한 삶과 성령의 임재를 간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행

하실 것"이라고 했다.

또 청년대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통일시대의 주역이며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소명자로서, 세상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건설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분단 극복과 통일을

향한 염원이 청년들에게서 불꽃과 같이 타오르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을 전명했다.

김진영 기자

201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회원, 회화학회원(Div.), 상담학회원, 선교학회원, ESL, TESOL

• 특전: SEVIS-I-20 학제 협력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시사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일학당 김은목사 (213)407-4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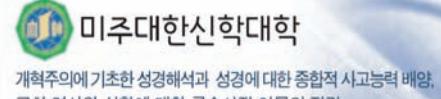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풍길 박사, 이사장: 김광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충족적 사고능력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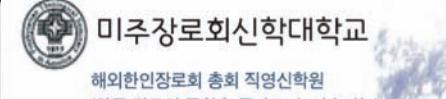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밀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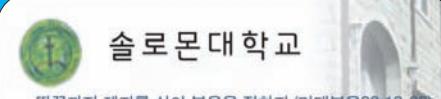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사, 인수기능)

I-20빌딩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CEO: 김호 박사

200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507-1933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507-1933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507-1933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토(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 오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 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9:15 EM 2부예배 오후 11:45
3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후 7:30
4부청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오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한지자들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상관) 금요예배 오후 7:00
오후 11시 (본성전)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상관: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록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증보기도모임 오후 10:30 EM 새벽기도회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열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 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인장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10: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 유초등부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종교교습부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기대연습 오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5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도대명회 오후 7:20
EM 예배 오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이정현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부 예배 오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녀부 예배 오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를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배(화-금) 오후 5:30
EM 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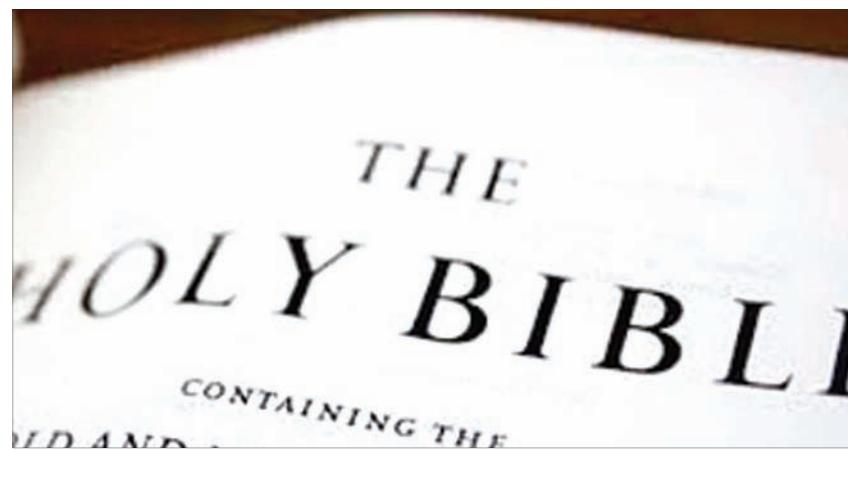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학내 성경구절 나눠주기 힘들어”

CA팜데일 공립초등학교에서…성경구절 나눠주던 7세 소년 제재당해

캘리포니아 팜데일(Palmdale)의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7세 소년이 학교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성경구절을 나눠 주다가 제재를 당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또한 지역 보안관이 이 소년의 집에까지 찾아와 부모에게 “교내에서 성경구절을 나눠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공격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가족들은 보수적인 법률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단체는 관할 학군에 데저트로즈초등학교(Desert Rose Elementary School)에서 발생한 일을 알렸다.

학부형인 크리스티나 자발라(Christina Zavala)는 1학년인 아들의 도시락 위에 격려하는 글과 성경구절을 넣어 주었고, 아들은 점심시간에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 학생은 지난 1월부터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 소년은 친구들에게 성경구절을 소리내서 읽어 주었고,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지 간절히 기대했다. 소년 주변에 점점 많은 학생들이 모이며, 이를 복사해서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성경구절 나눠 주는 것을 금지했고, 대신 “수업이 끝난 후 교문 앞에서 나눠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발라는 지난 4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측에 편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교사는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소년을 질책하며, “종교에 대해 말하거나 어머니가 써준 글귀를 나누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이 소년의 학부모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 교문 앞에서 성경구절을 나눠 줬고, 1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였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멜라니 파글리아로 교장은 교문 앞에 있던 소년의 아버지에게 와서 “학교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에서 이를 나눠 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그 지시에도 따랐다. 하지만 그날 밤, LA 보안관 대리가 소년의 가정을 방문해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성경구절을 나눠 주는 행동을 그만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리버티카운슬은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팜데일 학군도 “우리 학군의 데저트로즈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적인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아랍어 성경.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수니파 국가 사우디…기독교 개종자 증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앙적 양육을 받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이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반으로 한 사법 체계를 갖고 있다. 사우디 법정은 배교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엄중하고 물리적인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비무슬림들을 위한 예배 처소는 금지하고 있다.

미국국제자유종교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공적인 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슬람에 대한 이견(異見), 배교,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투옥시키거나 채찍질한다. 또한 종교 자유에 대해 더 무너지는 혐의를 체계적·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종교인들만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제정된 법률은 무신론을 테러리즘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무신론자들을 만나거나 이슬람의 핵심적 교리에 의문을 제기해도 안 된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약 1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 올해 초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4.4%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100년 전인 1910년에는 불과 0.1%(50명)도 되지 않았었다. 이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국외 거주자이거나 이민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

교회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인들 역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온라인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기독교를 배우고 개종한 후 비밀스럽게 신양생활을 하고 있는 무함마드(가명)를 후원하고 있다. 그는 앞서 다른 중동 국가의 기독교인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1주일간 그곳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됐고, 성경공부를 했다.

며칠 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그분은 나의 구주”라고 답하고 세례를 받은 후, 성경책을 들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왔다. 그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사우디에서 온라인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했다. 사우디 정부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개선된 모습도 있지만, 수니파 이슬람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종교적 표현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과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1980년대 영국에서 생산한 집속탄(cluster bomb)을 예멘에서 비밀리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최근에 나오자, 이를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집속탄은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형태로, 민간인 대량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찰아리배 8:00pm
사부예배 (월~토) 5:00am - (금요일) 7:00am
화요증강기도회 7:00pm 토요성경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도시체육예배 오전 6:00 설기축제 : 매월 4주째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c.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금요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育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은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 새벽 협사비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9:15 중등부 오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알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KM대학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4부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영광빛복음교회

주일 예배: 생방송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9:00 & 10:30 새벽예배 화~금 5:30, 토 6:00

예 친 교 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 788-3677 / www.yorba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호를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일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오후 8:00pm
주일 오전예배: 오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5:30pm
주일 영어 예배: 오후 11:00am 토요일 오전 6:00pm
주일 유초등 예배: 오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info@Potterscc.co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영어예배 월~금 6:30AM
주일학교 주일 11:30pm 대학교회 월~금 7:00PM
제자훈련(시작훈련 회) 주일 2:00pm 토요일 7:0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후 9:30, 11:30
한국어찬양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성장을 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어아동 예전 11:00 대학교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예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러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어아동 예전 11:00 대학교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예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하귀암 담임목사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 Ministry
1

CA 지역 목회자, 선교사 부부 초청

선착순
100명
한정

교회부흥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공개집회: 히브리 문화와 성경(6월 27일~29일, 저녁7:30)

한국 세종시에 개척 교회 시작, 하나님 은혜로 장년 성도 1,000명으로 급성장한 선우 권 목사님 초청!
개척 3년만에 종교부지 500평, 연건평 1300평의 1200석 성전 준공!
상가에서 출발해 매 주일 몇 가정씩 등록시키고 정착시키는 다양한 전도 방법, 새 가족, 특별 조직 관리!
히브리문화와 언어의 비밀을 풀어 주면서 각처에서 모여들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 일시: ① 세미나 – 6월 27일(월) 오후2시 부터

강의: Mon 2:00pm ~ 6:00pm (디너포함)

Tue, Wed 10:00am ~ 6:00pm (런치와 디너 포함)

② 평신도 공개집회 월,화,수 저녁7:30

*수요일 밤10시에 강의 종료와 함께 미주목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드림.

● 회비: \$40 (모든 교재와 식사포함). 송금 마감: 6월 15일

체크를 다우니제일교회로 보내주세요

pay to: Kwon Sunwoo Bank: 우리은행 1721000410

● 세미나 장소: 다우니 제일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담당: 안성복 목사 (562)861-1004



강사: 선우 권 목사

전.LA충신교회 개척시무(10년)

전.분당 남서울교회 개척시무(3년)

전.수지제자교회 개척시무(11년)

세종온누리교회 개척(4년)

개척3년후 부터 설교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천명이상의 성도들이

히브리어 원문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세종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 이메일 등록, 문자등록 or 문의

- doctorsmchoi@gmail.com Tel:(760)636-2675
- 최승목 목사(CA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 한국으로 문의(이메일) 선우 권 목사 sunwookwon@hanmail.net
- 한국으로 등록(카톡) 010-2379-7938(유튜브 설교:선우권목사)

● 세미나 내용

1. 어떻게 개척교회가 단 기간에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2.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와 멀리서도 이 교회를 찾아 올 수 밖에 없는 비결.
3. 생명 넘치는 설교, 히브리 문화와 원문설교를 쉽게하면서 영성설교로 연결.
4. 제자양육과 목장관리, 전도의 새 비법, 불신자를 전도하는 새 관계 전도 방법.
5.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관리 조직 비결!



1200석을 메우는 세종온누리교회 주일 아침예배 장면

2016 한인세계선교대회 이모저모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 읽는 곳에 위대한 부흥”

로렌 커닝햄 목사 “2020년까지 모든 민족 모든 가정에 성경을



로렌 커닝햄 목사(왼쪽)가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첫날 저녁집회에서 성경 보급 사역에 관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개막 후 첫 번째 집회는 로렌 커닝햄 목사(예수전도단 총재)가 맡았다.

6일 저녁선교대회에서 커닝햄 목사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커닝햄 목사를 소개한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담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될 때 그저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신앙의 모범”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커닝햄 목사가 설립한 예수전도단은 현재까지 4천 명 이상의 장단기 선교사를 배출했으며 하와이 코나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0 개국에 250개 열방대학을 세워 청년 전도자와 중보기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날 설교에서 커닝햄 목사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에 근거해 말씀을 전했다.

먼저 그는 1971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회고했다. 그는 6천 명 성도들 앞에서 “이제 한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했다고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고개를 떨구며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 가난합니다”라고 답했다. “집회를 마치고 나와 보니 그 6천 명 중에 자동차를 몰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 자전거도 보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외쳤다. 청중들로부터 박수와 아멘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를 간증한 후 “많이 받은 자에게는 큰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교회”라고 했다.

그는 십여 년 전에도 이런 경험

을 한 번 더 했다. “지구 상의 마지막 언어의 성경 번역이 2020년까지 이루어진다. 모든 민족, 모든 가정에 성경이 보급된다”는 영감을 받은 것이다. 당시 위클리프선교회는 전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 총히 150년이 걸린다는 통계를 내고 있었다. 그는 “위클리프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성경 번역의 속도를 좀 더 내도록 기도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위클리프는 2020년까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내어놓았다.

그는 “유럽, 미국, 한국 등 전세계 각국의 부흥 역사를 살펴보면,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읽는 일이 선행되었다”고 말했다. 성경 보급과 관련해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보급 방식이다.

그는 “한국과 중국이 구텐버그(Gutenberg, 구텐베르크)보다 앞서서 인쇄술을 개발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한 가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인쇄하지 않은 일”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구텐버그가 아닌 구글버그(Google-berg)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전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커닝햄 목사는 “구글이 전 세계 빙국의 40억 인구에게 위성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모바일 기기를 보급할 것이라 한다. 우리가 성경만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놓으면 인터넷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예수님께 2020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모든 가정이 성경을 읽게 하자”고 말했다.



전주안디옥교회 이동휘 원로목사가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모든 교회는 선교사 교회”

이동휘 목사 선교 도전…모든 성도가 선교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선교사입니다!”

한인세계선교대회 둘째 날 이동휘 목사(전주안디옥교회 원로, 바울선교회 대표)는 선교 도전의 시간에 “구원을 받아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도 모두는 권세와 능력으로 선교사 자격증을 받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렇기에 성도는 모두 선교사여야 하고 교회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뛰어넘어 선교사 교회(Missionary Church)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예수를 믿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다. 베드로나 바울 안에 계시던 성령이 내 안에도 계셔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들은 100% 순종해서 선교했지만 우린 10, 20%만 순종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인용하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예루살렘을 하고 온 유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을 하라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라 네 곳을 함께 하라는 동시적 명령어를 사용하신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예루살렘은 내가 사는 도시, 유대는 내가 사는 국가, 사마리아는 소외된 이들, 땅 끝은 해외선교를 가리킨다. 만약 ‘우리 교회는 작아서 내가 사는 도시만 선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나머지 3가지 명령은 무시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질문하며 “교회가 작아서 선교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 말고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 선교사, 기도로 돋는 기도 선교사, 물질로 돋는 물질 선교사, 직장을 복음화하는 직장 선교사, 온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 선교사, 인터넷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남기는 문화 선교사 등이 있다고 말하며 “삶의 현장에서 세계를 책임지는 사명자가 되라”고 도전을 던졌다.

이동휘 목사는 강통교회로 잘 알려진 전주안디옥교회를 개척했다.

첫 주보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넣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비전을 세웠고 성도가 20-30명일 때부터 해외선교를 시작했다.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세계 선교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 이 목사는 바울선교회를 창립해 현재까지 97개국에 49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김준형 기자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내 여성 선교사들의 총회가 열렸다. 사진 제일 앞줄 왼쪽 첫 번째가 송성자 목사, 다섯 번째가 김정희 전 회장, 여섯 번째가 배점선 신임 회장이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여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여름 학기

2016년 6월 20일(월)~8월 26일(금) 수업
(여름학기 등록마감 6월 20일까지)

모집 부문

신학 대학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홈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신학 대학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홈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신학과(BA) – 4년 / 126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넷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온라인 스템프로 할 \$65 (봉투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맞춤형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가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선물, 각종 연애, 헌·학·각종 사인(설날외, 차량) 제작, 판촉물제작 전문

junimmedia.com

제작 및 판촉, 선물제작, 명함제작 등 다양한 제품으로 인기하고 있으니

온라인 쇼핑몰 주님미디어 맞춤형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골드핑거****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마이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소피아 프로덕션 213-264-7899

www.sophiaproduction1.wix.com/201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한의사랑
한의사 Zo'e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 문제, 내분비 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 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트 예약 필수)

교/회/렌/트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엌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 91 근처)

Tel:(626)203-8008, (562)677-6005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조금만 걸어도 힘이 있거나 발바닥, 뒤큄지,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피눈, 군온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0 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골든씰**

Golden Seal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저용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Oxford Ave.

3rd St.

리프팅 라인·지방분해**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지독한 비듬, 두피염증, 가려움증, 탈모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가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방송인 송해선생님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프로자글드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213.434.1170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 한수희 칼럼(7) 회복탄력성에 대해

어떤 공을 선택할 것인가?

“삶은 행복해야만 한다”는 전제는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그릇된 신념이다. 오히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이 힘들다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나에 따라 우리는 절망, 비애, 슬픔, 외로움, 죄책감, 후회, 분노, 두려움, 걱정, 고뇌, 좌절 같은 감정을 일차적으로 느낀다. 이런 불편한 감정들로 인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고통의 감정을 피하려 하는 성향을 갖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칼 융은 “신경증(노이로제)이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다”라고 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피하려 했던 그 고통보다 피하려 하는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신경증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통을 피하는 대신 문제 해결의 고통을 자기 훈육을 통해 건설적으로 다뤄야 한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개념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을 적절하게 다루고 이겨나가는 개인의 능력, 또는 잠재적인 힘을 의미한다. 역경과 어려

움에 잠식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스트레스라는 공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유리와 나무와 고무로 만들어진 세 종류의 공이 있다. 각각의 공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산산 조각이 날 유리 공과 떨어진 채 바닥에 있을 나무 공과 바닥을 치고 튀어 오르는 고무 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은 고무 공을 쥐고 바닥에 던지는 것과 같다. 역경과 고난을 스프링보드 삼아 떨어뜨린 높이 보다 더 높게 튀어 오르도록 하는 성장의 과정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 것이다.

회복 탄력성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이다. 자기 조절 능력에는 감정 조절 능력과 충동 통제 능력뿐 아니라 원인 분석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포함된다. 원인 분석력이라 함은 당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도출 되었을 때, 그 원인과 결과의 상관 관계를 해석하는 개인의 관점 혹은 믿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렇지 뭐. 나한테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지.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될 거야.”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유리 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작은 일조차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쁜 상황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영속적으로, 보편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불필요한 불행을 껴 안고 살게 된다.

반면 이런 사람도 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을 고쳐나가면 다음에는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겠군”고 무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

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뭐.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이런 일이 생겼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 좋은 일을 통해 서도 불안을 자초하는 유리 공을 준 자들의 반응이다.

“이런 일이 생긴다니 참 감사하네. 다음에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준비해야 하겠는 걸” 감사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고무공을 준 자들의 반응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평가절하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 많다고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인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실수를 보다 잘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들이며, 역경과 실수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다. 삶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감사와 직결 되기 때문이며, 감사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이뤄야 한다는 완벽주의를 벗어나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사랑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 속에서 자신을 연단하고 그 과정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두려움없이 고무공을 튕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 쉽지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특별히 회복 탄력성을 높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은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도전과 자기 훈육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이다. 자기 훈육이란 비본능적인 것이 제2의 본능이 될 때까지 스스로에게 비본능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문제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에 대항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이 해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은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말 것이다”

• 김만태 전문칼럼(4)
대학설립ABC

대학 인가의 7가지 유익



김만태 대표
SAS인가컨설팅

대학 인가를 받는 데에 많은 비용과 시간,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가를 취득하고 유지한다. 그 이유는 대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 인가를 받게되면 7가지 유익을 얻는다.

첫째, 교육 수준을 인정받는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교수진, 교육시설, 제반 서비스가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인가 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일정 수준을 갖추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가를 받았는가의 여부는 그 대학의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둘째, 인가를 받으면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타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그 학위와 성적을 인정받는다. 주정부 승인만 있는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다른 인가받은 대학에서 그 학위와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세째, 인가를 받으면 학부생들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서 소득이 연 6만불 이하인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무상 학비지원을 받고 대학원생 이상은 저리 용자를 받는다. 이 자격은 대학이 인가 심사 신청 후 2, 3년이면 획득할 수 있다. 입학 지원자들은 대학이 학비무상보조 자격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것이다. 국제학생 유치는 많은 미국 대학들의 학생 유치 전략이다. 2015년에 미국 유학생 수는 약 120만 명이었고 중국, 인도, 한국의 순이었다. 국내 한국 유학생은 총 81,577명이었는데 이중 22.3%인 18,154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재학중이었다.

일곱째, 인가받은 대학들은 한국 교육부의 인가받은 미국대학 리스트에 등재된다. 국내에서 주정부

승인받은 대학들 역시 합법적인 교육기관이지만, 한국에서는 교육부 리스트에 기재 여부를 기준으로 미내 대학들을 평가하곤 한다.

이와 같이 대학인가의 일곱 가지 유익은 결국 학생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학의 수준과 위상이 인정받고 연방 재정 보조를 받고 유학생을 유

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학생 증원과 관계된다. 하지만 대학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과 시간,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도전과 수고를 감수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대학 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AS 인가컨설팅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213-531-7215

* 이메일: summitus37@gmail.com

인생은 일종의 ‘씨 뿌림’과 같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하려면 씨를 뿌려야 한다.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뿌리를 끊고 기도해야 한다.

인생은 ‘심고 거듭되는 법칙’의 지배

를 받는다. 심은 대로 기운다.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먼저 ‘씨의 종류’를 점검해야 한다.

바울은 씨를 것을 거두는 ‘육신’보다,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위해 씨를 심으라고 권고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씨를 뿌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착한 일을 위해 씨를 심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화평을

• 김병태 칼럼

씨뿌리는 자



김병태 목사
성천교회

심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8).” 더 이상 주저할 게 없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착한 일’과 ‘화평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악’을 위해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삶은 확실하리라(잠 11:18).”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잠 22:8).” 악의 씨를 심으면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는다.

우리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생각과 말, 행동, 습관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의식적으로 심는 예배의 씨, 감사의 씨,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전도의 씨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야 한다. 의식적으로 선행의 씨,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러나 ‘심음’은 나의 소관이나 ‘거둠’은 하나님의 소관임도 알아야 한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복사기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i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신간 추천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신다

김원광 | 나침반 | 2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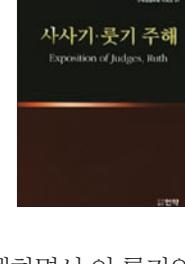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시작. 성경은 아무리 펴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삶과 같이 우리 삶에 늘 새로운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다.



사사기 룻기 주해

김수홍 | 언약 | 4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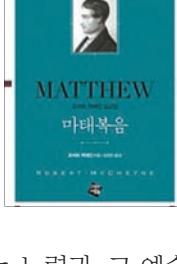
필자가 사사기를 주해하면서 사사기의 싸이클(순환)이 점점 기울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을 깨우는 자명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해를 했다. 필자는 또 룻기를 주해하면서 이 룻기의 주제가 교계에 나가서 모든 집안의 며느리들이 자세가 달라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룻기 안에 있는 고엘(가까운 친척으로 활동하는 자) 사상을 우리 교계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마태복음: 맥체인 설교집

로버트 맥체인 | 그책의사람들 | 2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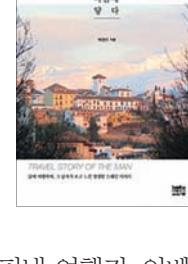
19세기 초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저자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한 설교와 강의 12편을 모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혼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절절함과 단호함이 모든 설교에 묻어난다. 많이 알려진 회고록이나 전기가 아닌, 그의 설교를 직접 읽을 수 있는 책.



스페인, 마음에 닿다

박영진 | 마음지기 | 304쪽

브라질·남아공의 여행 애세이를 출간하는 등, 직장을 그만두고 446일 동안 전 세계 70여 개국을 여행했던 저자가 가족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정착해 1년 넘게 살면서 펴낸 여행기. 이베리아 반도를 둘러싼 중세 가톨릭 왕국과 이슬람 왕국의 세력 싸움뿐 아니라, 훨씬 이전인 기원전 시대 원주민과 로마 제국의 이야기까지 스페인 땅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 설명을 더했다.



REVIEW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성령에 대한 오해는 없는가? 이 책은 성령에 대한 균형잡힌 안내서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 우월주의, 번역신학으로 벼랑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조용목 외
두란노 | 256쪽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성숙과 끝에 성령 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다.

지은이 조용목은 1982년 경기도 안양시에 은혜와 진리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왜곡된 성령론과 이에 대한 바른 가르침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면서, 이 책의 공저자인 최완기 목사와 뜻을 같이 하여 온라인 기도와 연구 끝에 이 책을 접필하게 되었다.

공동저자 최완기는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번호 1-877-580-2424 색우수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 귀국자동차 운송
-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 승용차 운송
-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 이사 화물 전문

[북스리뷰]

“결코 놓칠 수 없는 간절한 바람”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반드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둡고 슬프고 우울한 이 순간, 기억하라!”

나는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서 비로소 소망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라고 결단한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 소망 자체가 능력임을 배웠다.

그분께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달라진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실제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임을 배운다. 아침을 기다리는 목적이 달라진다. 내 주변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바람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된다. 내 기도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다라서 그분을 체험한다.

우리는 모두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질 때 좌절하고 우울해한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가가 삶의 자세와 모습과 방향을 결정한다.

때로 우리 안의 세상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기대가 총돌하는 경우가 있다. 지혜로운



기대
이용규
구장 | 256쪽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존재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이용규 선교사. 그의 이름 앞에는 ‘내려놓음’이란 수식어가 항상 붙는다. 10년 전인 2006년에 집필한 첫 책, <내려놓음>과 그 다음 해에 쓴 <더 내려놓음>이 100만여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 이후부터, 그 후 만 7년간 몽골 지역에서 시역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같

이 걷기>를 통해 나누었고, 또 다시 내려놓고 새 길을 떠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떠남>을 썼다.

그가 더 이상 나눌 게 없다고 느낄 즈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대’에 대해 묵상하게 하셨다. 그것도 그의 삶에 극심한 기근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인도네시아에서의 교육 사역을 막 일으켜야 하는데 그를 병원 침상에 꽁꽁 묶어두신 채로.

그는 소망은 사람의 몇 마디 위로의 말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 말한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피력한다. 또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울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선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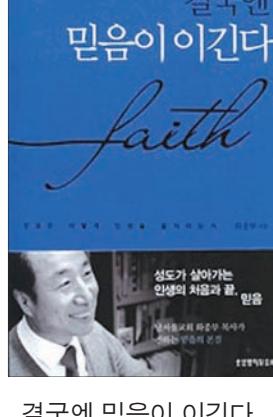
현재 이용규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선교와 한국교육단지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설립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추천도서]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

많이 아프지만 마냥 아프지만은 않은 따뜻한 책망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
회중부
생명의말씀사 | 304쪽

반가운 저자의 특별한 책이 나왔다. 저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전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관한 설교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온 것이다. 평소에 저자를 좋아하고, 또 저자의 설교를 즐겨 듣는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이 책의 주천사와 추천한 분들의 이름 뒤에 있는 호칭들이다. 집사 또는 권사이면서 교수, 주부, 원장, 과장, 회사원, 작가라는 호칭들을 가진 이들이 책의 주천사를 쓰고 있다.

화려한 수식이 될 수 있는 신학교 교수와 명망 있는 목사의 추천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저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이 설교가 선포된 자리에 있던 무명 성도들에게 추천사를 요청한 것이다. 한 마디로 참 ‘저자스럽다’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내용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다.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믿음의 개념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뒤 곧바로 각각의 인물들로 들어간다.

예배로 믿음을 증명한 아벨, 동행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애녹, 방주를 짓는 것으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노아. 이렇듯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의 짧막한 기사들을 가지고, 한 편 한 편의 완성된 설교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을 본다면 먼저 본문에 대한 적절한 주제의 과정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벨의 제사와 관련하여 저자는 현재 학계에서 말하는

세 가지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특유의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개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라는, 성도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의 답을 함께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속에서 찾아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시키지 않으면서 청중과 함께 호흡하며 결론으로 인도하는 과정 자체가, 성경 본문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처럼 여겨져 좋았다.

저자가 보이는 이러한 설명 방식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본문이 말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이것은 설교자의 권위가 아닌, 성경의 권위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의아했던 부분도 있었으나, 책을 읽어가는 동안 점점 더 설득되는 나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동안 느꼈던 또 하나의 특징은 ‘따뜻한 책망’이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믿음장을 설교하며 많은 성도와 조국교회의 믿음 없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한다. 잘못된 신앙과 그 신앙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로 가득한 조국교회를 밀하며 날이 선 비판을 한다.

저자는 에둘러 말하지 않고, 억지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다. 아프고 시린 날카로운 지적과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신기한 것은 저자의 책망이 ‘많이 아프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저자가 이 흐름을 치는 과정에서 사용한 말 한 마디 표현 하나하나에 들어 있는 ‘애정’ 때문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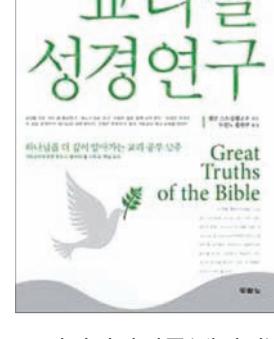
저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소리치지 않고, 자신이 하는 그 책망을 듣는 성도의 자리에서 함께 그 책망의 대상도 되고 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걷고 있는 이의 입에서 나온 책망이기에, 나는 방어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며 이 책망들을 들을 수 있었다.

소소한 아쉬움은, 저자의 구어체 문장의 원고가 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의미가 조금은 약화되거나 난해해진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조금만 문장들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영민 목사

크리스챤뉴스 편집위원

“교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교리별성경연구(개정판)
앨런 스트링펠로우
두란노 | 424쪽

밀, 교회,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이끌어 주고 있기도 하다.

충실한 성경 안내서로 인정받아온 이 책을 통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저자 앤런 스트링펠로우(Alan Stringfellow)는 수십 년을 목회자로 활동하며 복음과 성경을 가르쳤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던 그는 성경을 보다 쉽게 알도록 돋고자 저술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많은 저서는 평신도들도 서로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구성했고,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담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앤런 스트링펠로우는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위치한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한 뒤 포트워스의 트래비스 애비뉴침례교회,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의 제일침례교회, 프레즈노 제일침례교회, 반 누이스의 제일침례교회, 캘리포니아 주 베이커즈필드 바이블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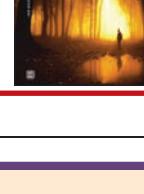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밀, 교회,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이끌어 주고 있기도 하다.

충실한 성경 안내서로 인정받아온 이 책을 통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저자 앤런 스트링펠로우(Alan Stringfellow)는 수십 년을 목회자로 활동하며 복음과 성경을 가르쳤다. 그의 많은 저서는 평신도들도 서로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구성했고,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담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앤런 스트링펠로우는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위치한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한 뒤 포트워스의 트래비스 애비뉴침례교회,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의 제일침례교회, 반 누이스의 제일침례교회, 캘리포니아 주 베이커즈필드 바이블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이영인 기자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 다른 저서

제3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4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5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6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7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8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한글인터넷주소 : 큐란 큐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안나가? 가나안!

— 소강석 —

지음

신앙의 왜곡과 일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기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교회를 안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태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긴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240면 / 11,000원

• 큐란 출판사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 다른 저서

제3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4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5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6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7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제8장의 삶을 살기 위한 철학
소강석 목사 | 264쪽 / 10,000원

•한글인터넷주소 : 큐란 큐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SBC Faces Decline in Church Attendance, but Church Planting on the Rise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found some good news and some bad news in its latest Annual Church Profile (ACP) report. SBC planted more churches last year and registered an increase in total giving, but has lost members and baptized fewer people over the course of nine years.

The SBC is the largest mainline Protestant denomination in Alabama and in the US, but lost over 200,000 members in one year. The church member count was 15.3 million in 2015, down from 15.5 million in 2014.

"God help us all! In a world that is desperate for the message of Christ, we continue to be less diligent in sharing the Good News," said Frank Page, SBC Executive Committee president and CEO. "May God forgive us and give us a new passion to reach this world for Christ."

The ACP, published by LifeWay Christian Resources in collaboration with the SBC, found that baptisms continued to decline for eight straight years, and fell by 3.3 percent in 2015 from the previous year. Last year about 295,000

baptisms were performed, which is a decrease of 10,000 since 2014.

"While a decrease in baptisms is very disappointing, we don't take for granted 295,000 baptisms. We should rejoice with each of those individuals who chose to follow Christ," said LifeWay President and CEO Thom S. Rainer.

Average worship went down from about 5.6 million to 5.5 million, which is a drop of almost 100,000 members in weekly attendance.

Sunday school, Bible studies, and small group attendance dropped by 3.18 percent to about 3.6 million in 2015 from 3.72 million in 2014.

The trend of decline was seen in total mission expenditures as well, which decreased slightly by about \$25 million in one year, and stood at \$1.20 billion in 2015.

Great commission giving also fell from \$637 million to \$613 million, even when total receipts increased slightly by \$391 million.

However, a silver lining in the report

is that as many as 294 more churches were planted, which is an increase of 0.63 percent since 2014. The number of SBC churches have increased steadily during the last 17 years.

Also, the amount of tithes increased by over \$406 million in one year to \$9.1 billion, which was a dramatic increase of 4.64 percent.

The ACP report shows many faithful Southern Baptists continue to worship, share the Gospel, give generously, and live in community with other believers," Rainer said. "We praise God for these efforts every year."

Southern Baptists survey their churches every year, and publicly report them even if membership is on decline.

"That's because we believe the admission of a problem is the first thing needed to correct it," Page said.

"We live in an anti-institutional, anti-church age, where people are opting out of organized religious activities," he added. But, he said he expects new churches to rise on the scene to counter such trends.

Massachusetts Lawmakers Pass Bill to Replace Word "Sex" with "Gender Identity" in State Laws

The Massachusetts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d 116-36 to pass a bill that replaces the term "sex" with "gender identity" in multiple areas of the state's laws. The lawmakers also dismissed an amendment that could ban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using bathrooms for the opposite biological sex.

The bill will now be discussed between the state's House and Senate regarding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ir respective versions, and will go to Governor Charlie Baker for signature.

The bill, H.4343, also aims to change various state laws to comply with the reinterpretation of 'sex' as 'gender identity.'

The legislators rejected 36 amendments before the passage of the bill. Amendment 9, for example, would have allowed public facilities to ban sex offenders from using bathrooms not aligned with their biological sex.

Critics of the bill said that it does not respect privacy rights of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by letting biological males and females to use restrooms of the other sex.

"This legislation takes rights away from 99.9 percent of the population," Rep. James Lyons told the Conservative Review. "Every parent that I have spoken with including a parent of a transgender child understands that this bill eliminates long held expectation of privacy and protection for children."

"The bill allows people on a routine basis to decide if they are male or female. Your anatomy is no longer rele-



(Photo: Francesco Mucio/Flickr/CC) Restroom signs at the Charlotte Airport. A new bill passed in the Massachusetts House of Rep. to change 'sex' to 'gender identity'.

vant. This has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discrimination, it has everything to do with changing our society and social engineering by those on the left," said Lyons.

Rep. John Fernandes said that no incidents of crime were recorded in the 17 states where the law is implemented to allow transgender people to use bathroom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Rep. Sheila Harrington also said that the assertions of the opponents of bill are based on hypothetical situations which have not happened.

Recently, executive director of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Georgia chapter Maya Dillard Smith resigned over the organization's stance on bath-

room policy, after encountering people the other sex in a public bathroom.

"I have shared my personal experience of having taken my elementary school age daughters into a women's restroom when shortly after three transgender young adults over six feet with deep voices entered," said Smith. "My children were visibly frightened, concerned about their safety and left asking lots of questions for which I, like many parents, was ill-prepared to answer."

The episode led her to b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her young daughters, and she launched a website titled, 'Finding Middle Ground' which urges people to openly discuss all the aspects related to this issue.

Tens of Millions Trapped in Modern Slavery, According to New Study

BY CHRISTINE KIM

Over 45 million people are living in some form of modern slavery, according to a new report.

The 2016 Global Slavery Index, a report released on May 31 by Australia-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 Walk Free Foundation, states that 45.8 million of the world's population is enslaved. The figure has increased by 10 million since 2014 when the group released its last report.

The report defines slavery as "situations of exploitation that a person cannot refuse or leave because of threats, violence, coercion, abuse of power or deception," including early or forced marriage, organ trafficking, debt-based labor, and prostitution.

Susceptibility to enslavement is due to an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according to the report. It broke down 24 measures of vulnerability into four dimensions: civil and political protections, social health and economic rights, personal security, and refugee populations and conflict.

The report found that over half (58 percent) of the population of those living in slavery are in India, China, Pakistan, Bangladesh, and Uzbekistan. India has the highest number of slaves at 18.35 million, followed by China at 3.39

million and Pakistan at 2.13 million.

The index noted that "several of these countries provide the low-cost labour that produces consumer goods for markets in Western Europe, Japan, North America and Australia."

North Korea was found to be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estimated prevalence of modern slavery by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t 4.4 percent of the 25.15 million population, followed by Uzbekistan at 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31.13 million. In the ranking of countries by government response, North Korea was found to be doing the least to combat slavery, characterized by "government complicity, low levels of political will, or high levels of conflict and political instability," along with Iran, Eritrea, Equatorial Guinea, Hong Kong, Central African Republic, Papua New Guinea, Guinea,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South Sudan.

Data on government action was not able to be collected for Afghanistan, Iraq, Libya, Somalia, Syria or Yemen due to conflict and government ins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Netherlands, the United States, Britain, Sweden, and Australia were found to be the countries with governments that responded the most strongly to cases of slavery.

Countries that were found to have a strong response with fewer resources include the Philippines, Brazil, Georgia, Jamaica, Croatia, Montenegro, Macedonia, Moldova, Albania and Serbia.

Founder of the Walk Free Foundation Andrew Forrest recognized that the collected data extrapolated the estimates for some nations based on data collected for other nations, which could be a point of criticism.

"Measuring the number of people in modern slavery is a difficult undertaking due to the hidden nature of this crime and low levels of victim identification," the report reads.

However, "Without measurement you don't have effective management and there's no way to lead the world away from slavery," he told the Thomson Reuters Foundation. "We want this index to be a call to action."

The report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42,000 respondents by Gallup across 25 countries in 53 different languages, ranking 167 countrie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in slavery, absolute number of people in slavery, measures of vulnerability, and government response.

"We need to make it clear we're not going to tolerate slavery and when there is slavery in a regime we should not trade with them," Forrest said.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PASTOR MIC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 가능**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가정의 달 SALE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SE**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Lease It For **\$88^{+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All in Stock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10,0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6 HYUNDAI
GENESIS Signature Package**

Lease It For **\$239^{+Tax}**

All In Stock With
MSRP \$43,785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3,500 Lease Cash,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